

식기는 전부 호리병박을 반으로 쪼갠 것이었고, 식탁보 대신 바나나나무잎이 깔려 있었지. 처음에 총독은 이 거주지의 궁핍함에 약간 드악한 기색을 내보였다네. 그러더니 이내 라 투르 부인에게 말을 건네면서, 업무 전반을 관할하느라 중간 중간 주민 개개인의 일을 생각할 여유는 없었지만, 부인에게는 자기에게 뭐든 요구해도 좋을 만큼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했지.

“부인께서는,”

그가 말을 덧붙였네.

“과리에 지체 높고 아주 부유한 이모님이 계시다지요. 부인에게 남겨줄 재산을 마련해두고 부인을 곁에 두길 기다리고 계신다더군요.”

라 투르 부인은 총독에게 자기는 건강이 좋지 못해 그리 긴 여행은 떠날 수 없다고 대답했지.

“그렇다면 적어도,”

라 부르도네 씨가 말을 이었네.

“젊디젊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부인의 따님 아가씨 입장은요. 부당함을 감추지 않고서야 그토록 막대한 상속재산을 포기하게 하시진 못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부인의 이모님께서는 닥네 따님을 오게 해 곁에 두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지요.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제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이 식민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제가 힘을